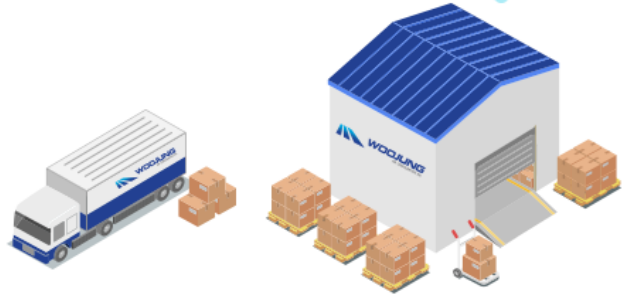




# WOJUNG GRAM



## 글로벌 및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 동향

### ▣ Xeneta : 무역전쟁이 항공화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

업계 분석가 제네타(Xeneta)에 따르면, 1월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전년 대비 2%에 그쳐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관세를 둘러싼 무역전쟁으로 인해 올해 물량과 성장 예측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작년 내내 두 자릿수의 월별 증가에 이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데이터는 이른 음력설로 인해 중국에서 나오는 물량이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았다고 Xeneta의 최고 항공화물 책임자인 Niall van de Wouw는 말했습니다.

사실, van de Wouw는 미국이 특히 중국에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와 그에 따른 보복에 대한 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량이 4~6% 성장할 것이라는 제네타의 예측을 바꿀 즉각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적업체들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월 항공화물 수요의 낮은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이른 음력설 때문만도 아닙니다. 또한 2024년 1월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와도 비교됩니다."**라고 반 드 와우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시장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계획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의 관세 시행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대응은 협상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모든 것을 협상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이미 보았듯이 전 세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관성은 그가 거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무역 신뢰에 좋지 않고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을 넣기 전에 일종의 안정성을 보고 싶어합니다.

"내가 화주라면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거나 과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게 할 팀을 준비시키겠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은 칼을 휘두르는 소리와 소음이 많지만 명확성은 거의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위협]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수요는 2023년 3분기 이후 항공화물량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기동 중 하나였으며, 최소한의 면제 종료는 중국-미국 항공화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소비자 수요 감소 자체보다는 운영 중단 때문이라고 van de Wouw는 말했습니다.

2024년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미국으로의 운송은 전체 글로벌 매출의 25%를 차지했으며,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화물 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면제 조항을 중단하면 이러한 수입 선적물이 최소한의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중국과 미국 및 그 외 지역 간의 항공 화물 운송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입국 신고 요건이 추가되고 세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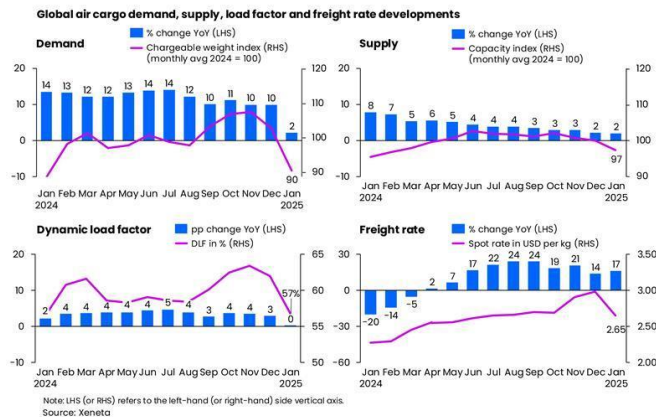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작년에 20~30% 성장했고, 2023년에도 비슷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의 소비자 수요를 깨려면 쇠망치가 필요할 것이고, 저는 최소한의 규제만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는 최소한의 규제 허점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싸고 빠른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이용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을 제외하면 전자상거래 제품은 약간 더 비쌀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소매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 중단으로 인해 상품을 받는 데 지연이 발생하면 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매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축소화

로 인해 이 규모의 사업 모델이 붕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van de Wouw는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제한이 차단되더라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는 여전히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단기적으로 항공화물 요금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미국 내 수신 공항에서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말입니다."  
 van de Wouw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저렴한 가격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느낄 경우에만 전자상거래 수요와 그에 따른 운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글로벌 수준에서 운임에 큰 하락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 이를 예측하는 것은 'cry wolf'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아마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van de Wouw는 전자상거래 물량의 성장이 둔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일반 화물 운송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량이 다른 곳에 배치되어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서 요금에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항공화물 수요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적인 성장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2025년에도 상당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2025 begins with modest cargo demand growth, creating a more balanced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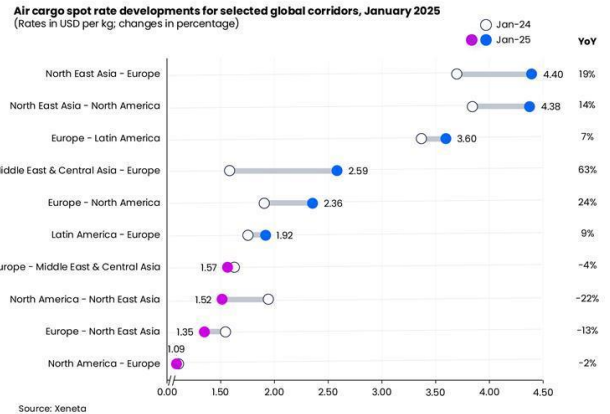
(2025년은 적당한 수요 증가로 시작되어 보다 균형 잡힌 시장을 만든다)

**[Mixed performance]**

올해 첫 달 전 세계 항공화물의 과금 중량은 해상 운송 중단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2%만 증가했습니다.  
 예상대로, 1월 글로벌 항공화물 수송량은 2%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1월 동적 적재율(dynamic load factor)이 1년 전과 같은 수준인 57%로 낮아졌습니다.  
 동적 적재율은 가용 용량 내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양과 무게를 기반으로 한 Xeneta의 용량 활용도 측정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의 글로벌 항공화물 현물 가격은 작년보다 17%나 높아져, kg당 2.65달러에 달했으며,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56%나 높았습니다.  
 Xeneta는 이러한 높은 요금이 전자상거래 붐, 항공기 생산 감소로 인한 항공화물 수용 능력 제한, 러시아 영공 폐쇄로 인한 항공편 경로 변경, 공급-수요 변화에 따른 화물 요금 조정 지연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의 글로벌 항공화물 현물 가격은 전월 대비 11% 하락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13%)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증가는 중동 및 중앙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거래에서 나타났으며, 항공화물 스팟 요금은 홍해의 지속적인 혼란으로 인해 1년 전 대비 63%나 급등하여 kg당 2.59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에서 북미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현물 가격은 전년 대비 24% 상승해 kg당 2.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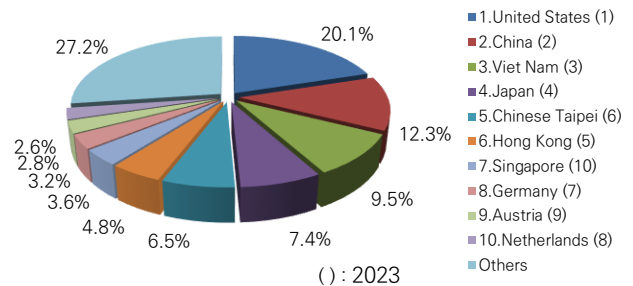
화물선 용량을 아시아 관련 무역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한 것이 북동아시아에서 적당한 요금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북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현물 요금은 19% 상승하여 kg당 \$4.40이 되었고, 북미로 가는 요금은 14% 상승하여 kg당 \$4.38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회랑에서의 백홀 거래는 무역 불균형이 커지면서 현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북미에서 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회랑에서는 -22%, 북미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회랑에서는 -2%였습니다.  
 항공화물 현물 가격이 양방향으로 증가한 유일한 지역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사이 지역으로, 전년 대비 높은 한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료:AirCargoNews]

**Diverse trends across fronthaul and backhaul trades**



**■ 우리나라 수출 항공화물 현황**

CASS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2월 전체 나라별 항공 수출 물동량은 미국에 가장 많이 하였고 이어서 중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이어졌고 상위 4나라의 순위는 2023년 순위와 비교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Top10 나라의 총 물동량이 전체의 72.8%를 차지하였습니다. [자료: CASS]



**(주) 우정항공**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5층 (남농빌딩)  
 TEL : 02-3275-1321 / FAX : 02-3275-1327  
[woojung@woojungair.co.kr](mailto:woojung@woojungair.co.kr) / [www.woojungair.co.kr](http://www.woojungair.co.kr)



## 제1사업부 - 미주/중남미/캐나다

- 추현석 상무이사 : [hschu@woojungair.co.kr](mailto:hschu@woojungair.co.kr) ☎ 02-3271-3520
- 송창진 팀장 : [cjsong@woojungair.co.kr](mailto:cjsong@woojungair.co.kr) ☎ 02-3271-3528
- 정영덕 프로 : [ydjeong@woojungair.co.kr](mailto:ydjeong@woojungair.co.kr) ☎ 02-3271-3529
- 엄호영 프로 : [hyeom@woojungair.co.kr](mailto:hyeom@woojungair.co.kr) ☎ 02-3271-3527
- 박수현 프로 : [shpark@woojungair.co.kr](mailto:shpark@woojungair.co.kr) ☎ 02-3271-3526
- 김진영 프로 : [jykim@woojungair.co.kr](mailto:jykim@woojungair.co.kr) ☎ 02-3271-3521
- 김연희 프로 : [yh1kim@woojungair.co.kr](mailto:yh1kim@woojungair.co.kr) ☎ 02-3271-3522
- 천성희 프로 : [shcheon@woojungair.co.kr](mailto:shcheon@woojungair.co.kr) ☎ 02-3271-3524
- 유현지 프로 : [hjyu@woojungair.co.kr](mailto:hjyu@woojungair.co.kr) ☎ 02-3271-3523
- 부서 이메일 : [usa@woojungair.co.kr](mailto:usa@woojungair.co.kr)

### ■ 2025년 2월 미주 CAPACITY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7	28	29	30	31	01	02
					DL196 1LDP DL15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2 2~3MDP OZ587 1~2MDP
03	04	05	06	07	08	09
DL196 1LDP DL158 1LDP OZ244 ORD/DFW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OZ587 1~2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OZ587 1~2MDP	DL196 1LDP DL15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2 2~3MDP OZ587 1~2MDP
10	11	12	13	14	15	16
DL196 1LDP DL158 1LDP OZ244 ORD/DFW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OZ587 1~2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OZ587 1~2MDP	DL196 1LDP DL15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2 2~3MDP OZ587 1~2MDP
17	18	19	20	21	22	23
DL196 1LDP DL158 1LDP OZ244 ORD/DFW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OZ587 1~2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OZ587 1~2MDP	DL196 1LDP DL15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2 2~3MDP OZ587 1~2MDP
24	25	26	27	28	01	02
DL196 1LDP DL158 1LDP OZ244 ORD/DFW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OZ587 1~2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DL196 1LDP DL170 1LDP DL188 1LDP OZ242 ORD/DFW 2~3MDP OZ286 2~3MDP	DL196 1LDP DL158 1LDP OZ248 ORD/ATL 2~3MDP OZ284 2~3MDP OZ587 1~2MDP		

- ① OZ284/286/282 서부지역 DAILY 작업, OZ 계약사 최대 캐파 보유!!
- ② OZ244/242/248 중부지역 ORD DAILY, DFW 월/화/목/토, ATL 수/금/일 작업!!
- ③ OZ587 동부지역 JFK 화/금/일 작업!!
- ④ DL196 SEA 직항 및 서부 이원 지역, DAILY-1LDP
- ⑤ DL158 DTW 직항 및 중/동부 이원 지역, D1567-1LDP
- ⑥ DL170 MSP 직항 및 중/동부 이원 지역, D234-1LDP
- ⑦ DL188 ATL 직항 및 중남미지역, D347-1LDP

### ■ 중남미 AWB 기재 사항

국가	DEST	특이사항
멕시코	MEX MTY GDL 등	CNEE RFC 필수기재
과테말라	GUA 등	CNEE NIT 필수기재
콜롬비아	BOG MDE BAQ CLO 등	CNEE NIT 필수 기재
에콰도르	UIO GYE 등	CNEE RUC 필수기재
페루	LIM 등	CNEE RUC 필수기재
브라질	GRU VCP GIG CWB 등	CNEE CNPJ 필수기재
칠레	SCL IQQ PUQ ANF 등	CNEE RUT 필수 기재
아르헨티나	EZE COR MDZ ROS 등	CNEE CUIT, HS CODE 필수기재

\*\* 상기 지역 외에도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 진행 시 CNEE TAX ID 기재가 요구되고 있으니 진행 전 확인바랍니다.

\*\* 항공사 반입 중량만 인정하는 일부 캐리어는 우정(및 대리점) 계근 값과 디퍼 발생할 경우에 정정 마감이 불가피하오니, 중남미 진행 시에는 특히 유의하시어 사전에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 (주) 우정항공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5층 (나눔빌딩)

TEL : 02-3275-1321 / FAX : 02-3275-1327

[woojung@woojungair.co.kr](mailto:woojung@woojungair.co.kr) / [www.woojungair.co.kr](http://www.woojungair.co.kr)



■ 기타알림

- ① AA 항공사의 ICN-DFW 구간 직항 서비스는 2/7 까지만 운영되며, 이후 BNE/NRT/HNL 등의 T.S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 ② AC 항공사 진행 시 MAWB 상의 G.WT/ C.WT 모두 항공사 반입 기준으로 마감 필요하며, 현지 서류 사전 컨펌 등의 사유로 인해 별도의 WT 로 마감이 필요할 경우 WT DIFFER 각서 제출하여 컨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월 부 시행)

- ③ AC 항공사에서 항공사 로테이션 상의 문제로 인해 YVR/YYZ 노선에서 7 회 FLT 캔슬이 있을 예정이오니 진행 전 스케줄 문의바랍니다.
- ④ YP 항공사에서 항공기 정비로 인해 2 월에 EWR/LAX 노선에서 9 회 FLT 캔슬이 있을 예정이오니 진행 전 스케줄 문의바랍니다.

제2사업부 – 유럽/중동/아프리카/중양아시아

- 황남수 상무이사 : nshwang@wojungair.co.kr ☎ 02-3271-3540
- 임안젤라 팀장 : angella.lim@wojungair.co.kr ☎ 02-3271-3549
- 박소정 프로 : sj.park@wojungair.co.kr ☎ 02-3271-3562
- 김경민 프로 : gmkim@wojungair.co.kr ☎ 02-3271-3543
- 진윤진 프로 : jyjin@wojungair.co.kr ☎ 02-3271-3530
- 한송이 팀장 : sihan@wojungair.co.kr ☎ 02-3271-3525
- 차혜련 프로 : hrcha@wojungair.co.kr ☎ 02-3271-3542
- 최재영 프로 : jychoi@wojungair.co.kr ☎ 02-3271-3564
- 전영민 프로 : ymjeon@wojungair.co.kr ☎ 02-3271-3541
- 나덕주 프로 : djna@wojungair.co.kr ☎ 070-8833-2117
- 김 현 프로 : hkim@wojungair.co.kr ☎ 070-8833-0381
- 최영웅 프로 : ywchoi@wojungair.co.kr ☎ 070-8833 2116
- 부서 이메일 : eu1@wojungair.co.kr, eu2@wojungair.co.kr, bsa@wojungair.co.kr

■ QR (카타르항공)

- ① 주 4 회 (매주 수,금,토,일) 당사 BUP 작업.
- ② 메인 유럽지역 연결 원활.
- ③ 연결 ALLOTMENT 확보하여 원활한 연결 가능.
- ④ 하이 덴서티 & 볼륨 화물 요청가격 매치 가능.
- ⑤ 아프리카지역 연결 백록으로 큰 물량의 경우 연결 사전확인 후 부킹 필요.
- ⑥ 2 월 15 일부 이태리향 other charge 신설 안내 ( 운임 code: GT )  
:The Italian Government applies tax on all cargo imported from non-European Countries

Name of Other charge	Charge	QR code	Currency	Amount	Application	Charges Details
Government Tax	To/ Transit MXP	GT	KRW	15	per Gross Weight	Min KRW15 based on gross wt.
	To/ Transit FCO			5		Min KRW35 based on gross wt.
	To/ Transit VCE			40		Min KRW40 based on gross wt.

■ TK (터키항공)

- ① 상시 운임 조정 가능하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② 주 4 회 (수,금,토,일요일) Block 스페이스 운영 중.

Day	Flt No.	비고
수	TK091	여객기 / CUT OFF 화요일 15시
금	TK6545	화물기 / CUT OFF 목요일 16시
토	TK091	여객기 / CUT OFF 금요일 15시
일	TK6545	화물기 / CUT OFF 토요일 16시

- ③ TK BUP 화물 입고지 변경.  
: TK BUP 작업이 WRT(우정항공 상용화주터미널) 작업으로 변경되어 BUP 진행화물은 우정항공 반입 부탁드립니다.
- ④ TK 로 진행되는 전 지역 화물 ICAO 보안 규정에 의해 수출 화물 반입 후 CSD 파일 업로드 필수.  
\*\* X-RAY 검색 진행 -> SPX  
\*\* 모든 화물 X-RAY 검색 필수, X-RAY 검색 불가 화물(SCO)은 별도 문의.

■ CV/C8 (카고룩스/카고룩스 이탈리아)

- ① 주 3 회 (월,수,토) 당사 BSA 작업

Day	Flt No.	Allocation
1	C87111	04:10(ICN)-16:30(MXP)-20:25(LUX)
3	C87113	06:40(ICN)-18:45(MXP)-22:40(LUX)
6	CV9015	04:10(ICN)-18:20(LUX)

- ② 2 월 5,10 일 운항편은 캔슬되었으므로, 진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LH (루프트한자카고)

- ① LH8387/LH8385/LH8383 DAILY 진행 [02:20-08:20]
- ② WAW 트럭서비스 운행  
: FRA->WAW 트럭킹(월/화/수/목/일)
- ③ 2025 년 2 월 화물기 캔슬 일정 안내.  
\* LH8035 / 01 FEB CXX , LH8035 / 05 FEB CXX  
\* LH8385 / 07 FEB CXX , LH8385 / 14 FEB CXX  
\* LH8383 / 24 FEB CXX

★★ LH/QR/TK/CV/C8 BUP 작업으로 안정적인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 타 캐리어 운임도 네고 가능하니 유럽/중동/아프리카/중양아시아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KE (대한항공)

- ① 24년3월1일 이후 한국 발 e-AWB 사용 의무화 계획에 따라 종이 운송장 (M/AWB) 사용시 수수료 부과 (유럽/IST/TLV/DXB)  
CODE: MWC 15000/MAWB

■ OZ (아시아나항공)

- ① 동계 기간 CAI 직항 운항  
: ICN-CAI OZ557 D24 [10:20-16:00] A350

(주) 우정항공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5층 (나눔빌딩)  
TEL : 02-3275-1321 / FAX : 02-3275-1327  
wojung@wojungair.co.kr / www.wojungair.co.kr





■ EY (에티하드항공)

① 동계 편명 변경 ( 24.10.27 ~ 25.03.29 )

기존 스케줄

Flt No.	Days	From	To	Equip	Dep.*	Arr.*
EY859	D1246	ICN	AUH	B787-9	0:55	5:50
EY857	Daily	ICN	AUH	B787-9	18:00	23:00

동계 스케줄 (27OCT'24 ~ 29MAR'25)

Flt No.	Days	From	To	Equip	Dep.*	Arr.*
EY827	D1246	ICN	AUH	B787-9	0:20	5:50
EY823	Daily	ICN	AUH	B787-9	17:50	23:20

\* 화물 CUT OFF TIME (항공기 출발 4 시간전)

EY823 - 13:50LT  
EY827 - 20:20LT

- ② 액체 및 가루 류 MSDS 및 화주자서 사진 제출.
- ③ 중동(JED/RUH/DMM/AMM/KWI) CONSOL 또는 CONSOLIDATION 표기금지
- ④ DXB 창고 적체로 현재 DWC 로만 진행 가능.
  - ★ DXB 공항 : 특수화물만(COU,PER,VAL 등) 진행가능
  - ★ DWC 공항 : 일반/특수화물 모두 진행가능

■ ET (에티오피아항공)

① ICN-ADD 정규 스케줄

FREQ	FLT NO	ETD	ETA	A/C
D1/2/4/5/6/7	ET673	0030	0745	WIDE
D1/4	ET3618/3673	1105	1950	FRT(77X)
D3	ET3618	1230	2020	

- ② 1 월 15 일부 신규 서비스 지역 : PZU(수단),ROB(라이베리아), 재개지역 : BEY(레바논)
- ③ EU 전지역(DME,OSL 포함)및 카메룬(DLA/NSI) 기타 SHJ,DXB 지역은 반드시 MAWB/HAWB 상에 HS CODE 가 전송 되어야함(ZIP CODE 기재 필수)
- ④ Other Charge 안내 : MYC 710원/CW, AEC(Aviation Security Charge : 10원/CW AWC : 12,000원/MAWB, CGC : 12,000원/MAWB

■ HY (우즈베키스탄항공)

① ICN-TAS-VKO/DME/LED/ALA/FRU/TBS/DYU 등 운송가능. 건별 문의

SECTOR	FLT NO.	ETD/ETA	DAY	A/C
ICN-TAS	HY512	10:00 / 13:10	MON, TUE, WED, FRI	B788
	HY514	10:00 / 13:10	THU, SAT	B788
	HY516	07:50 / 11:00	SUN	B788

- ② 필수 준수사항
  - A. AWB 상 AS ARRANGED 마감
  - B. 마스터 싱글만 가능, AWB 상 CONSOL 및 CONSOLIDATION 기재불가
  - C. EDI 전송 시 HS CODE 전송
- ③ Other Charge 안내
  - A. MYC 400/CW
  - B. AWC 11,000/MAWB
  - C. MCC 12000/MAWB (RU, BY, KZ, KG, IL)
  - D. MCC 40000/MAWB (EU, AE)

■ KC (에어아스타나항공)

① 2 월 스케줄안내

Destination	Flight #	ETD	ETA	Frequency	A/C Type	Remark	
ALA	Almaty	KC910	11:40	14:50	D4567	B763	01FEB25~UFN (07 CNXL)
					D2		
NQZ	Astana	KC210	08:15	12:05	D47	A21N	01FEB25~UFN

\* VIA HKT to ALA (전 구간 Wide-body operation)

Route	Flight #	ETD	ETA	Frequency	A/C Type	Remark
ICN	HKT	KE663	1655	2140	DAILY	A333
HKT	ALA	KC564	1045	1615	DAILY	B763

② MYC 410 원/CW

■ AF/KL (에어프랑스/케이엘엠)

① 2025년 1월 1일부터 Other charge 변경

Code	Description	Current	As of 01Jan'25
CC	FHL Data Processing Fee	per FHL	7,150 7,350
DF	Offline Booking Fee	per Booking	14,800 16,300
DF	Online Booking Fee	per Booking	3,000 4,500
DH	CCA Fee	per CCA	103,200 106,000
DJ	POD Fee	per POD	54,300 56,000
HR	Handling Human Remains	per AWB	NEW 15,000
MU	SAF Contribution Fee	per Gross weight	NEW 51
NE	Paper AWB Fee	per AWB	73,900 74,600
PA	Pharma Acceptance Fee	per AWB	45,100 46,500
RA	DG Handling Fee	per AWB	138,000 141,500
RA	DG Light Handling Fee	per AWB	70,000 71,750
RD	Hidden/Undeclared DG Fee	per AWB	NEW 276,000

■ LO (폴란드항공)

① 동계 정규 스케줄 ( 24.10.27 ~ 25.03.29 )

ORIGIN	DEST	FLT NO.	ETD	ETA	FREQUENCY	A/C TYPE
ICN	WAW	LO098	12:35	17:45	2 4	B787-800 & B787-900
			13:25	18:35	6	
	LO1098	08:50	14:00	7		
	WRO	LO2006	08:50	14:25	5	
BUD	LO2002	09:20	14:00	1 3		

DEST	MON	TUE	WED	THU	FRI	SAT	SUN
WAW		LO098		LO098		LO098	LO1098
WRO					LO2006		
BUD	LO2002		LO2002				

- ② 2025년도 하계 시즌 동안 인천(ICN)-부다페스트(BUD) 직항편 임시 운휴
  - \*\* 운휴 사유: 작년부터 문제 시 되고 있는 롤스로이스 트랜트 엔진 점검 문제로 부득이하게 결항 조치되었습니다.
  - \*\* 운휴 내용: LO2002 / ICN-BUD / 31MAR'25 (월) ~ 25OCT'25 (토) / CNXL
- ③ MAWB 및 EDI 전송 시 SHIPPER & CONSIGNEE 의 정확한 우편번호 및 국가코드 입력필수
- ④ 올바른 우편번호 표기방식 ##-### (예:01-234), "- "입력필수, 누락시 통관지연이 발생할수 있음

■ 5J (세부퍼시픽)

- ① 운항스케줄
  - ICN-MNL 5J187 D24567 [01:15-04:30]
  - MNL-DXB 5J14 DAILY [14:55-20:40]
- ② ELM 및 SP 적용 진행 불가

(주) 우정항공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5층 (나눔빌딩)  
TEL : 02-3275-1321 / FAX : 02-3275-1327  
woojung@woojungair.co.kr / www.woojungair.co.kr



■ AY (핀 에어)

-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러시아, 벨라루스행 화물 선적 불가.
  - \*\* AWB 상 다른 DEST 나 최종목적지가 러시아, 벨라루스인 경우 포함.
  - \*\* MAWB & HAWB 상 CNEE 가 러시아, 벨라루스인 경우 포함
  - \*\* HEL 또는 도착지 세관 적발 시 화물 Shipback 또는 폐기조치, 패널티 발생
- ② E-commerce 진행불가 품목
  - A. 총기류(장난감 총, 연습용 목재 총 포함)
  - B. RLI ( UN3090, UN3480 )
  - C. 도검류( 목각포함 ), 폭죽
  - D. 삼푸등의 액체류 : MSDS 공항 허가 득 후 진행

■ GF (걸프항공)

- ① 새로 부과되는 New Other Charge
  - : 모든 DEST 진행시, 아래 코드로 MAWB 상에 기입 및 운임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일 : 2025 년 1 월 1 일부
  - \*\* 적용내용 : Custom Transit Screening Charge for cargo via MNL
  - \*\* 적용요금 : 25 원 / C.WT 기준
  - \*\* 기재 CODE : ZCC

제3사업부 – 동남아/서남아/대양주/동북아

- 유대근 상무이사 : [dkyou@woojungair.co.kr](mailto:dkyou@woojungair.co.kr) ☎ 02-3271-3580
- 김진선 팀장 : [js1kim@woojungair.co.kr](mailto:js1kim@woojungair.co.kr) ☎ 02-3271-3583
- 양민영 프로 : [myyang@woojungair.co.kr](mailto:myyang@woojungair.co.kr) ☎ 02-3271-3582
- 윤지애 프로 : [jayoon@woojungair.co.kr](mailto:jayoon@woojungair.co.kr) ☎ 02-3271-3584
- 황규식 프로 : [kshwang@woojungair.co.kr](mailto:kshwang@woojungair.co.kr) ☎ 02-3271-3581
- 김민주 프로 : [mjkim@woojungair.co.kr](mailto:mjkim@woojungair.co.kr) ☎ 02-3271-3585
- 김영성 팀장 : [yskim@woojungair.co.kr](mailto:yskim@woojungair.co.kr) ☎ 02-3271-3560
- 이유민 프로 : [ym1lee@woojungair.co.kr](mailto:ym1lee@woojungair.co.kr) ☎ 02-3271-3561
- 윤재건 프로 : [jgyoon@woojungair.co.kr](mailto:jgyoon@woojungair.co.kr) ☎ 02-3271-3547
- 권혜수 팀장 : [hskwon@woojungair.co.kr](mailto:hskwon@woojungair.co.kr) ☎ 02-3271-3546
- 김지선 프로 : [jskim@woojungair.co.kr](mailto:jskim@woojungair.co.kr) ☎ 02-3271-3548
- 이슬기 프로 : [sk2lee@woojungair.co.kr](mailto:sk2lee@woojungair.co.kr) ☎ 02-3271-3544
- 이혜인 프로 : [hilee@woojungair.co.kr](mailto:hilee@woojungair.co.kr) ☎ 02-3271-3545
- 부서 이메일 : [asia@woojungair.co.kr](mailto:asia@woojungair.co.kr), [china@woojungair.co.kr](mailto:china@woojungair.co.kr)

동남아/서남아/대양주

■ 항공사별 변동사항

항공사	변동사항
SQ	SIN 정규편 운항 취소. ① ICN-SIN : SQ605 , 2/17~3/13 정규편 비운항
YP	BKK 2월 결항편 ① ICN-BKK YP601 2/5,8,12 일 정비로 인한 임시 결항
GA	CGK 2월 결항편 ① ICN-CGK GA879(직항편) 2/8,22 일 비운항
7C	HAN 화물기 운항 중단 안내. : 2025.02/2-2025.03.29 까지 7C9205 화물기 운항 중단
MH	2월 스케줄 및 MAA 연결편 안내 ① ICN - KUL * MH067 [11:05-16:45] DAILY * MH039 [00:10-05:55] 월,목,토,일 * MH037 [01:45-07:30] 금 ② KUL - MAA * VVW209 [18:00-20:15] 화,목,토

동북아

■ 항공사별 변동사항

항공사	변동사항
KE	2/5일부터~ 3/8일까지 SZX BULK로 운항 예정, 카톤사이즈 소량만 진행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KJ	최근 일반화물 선적 시, 위험물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 포장재를 재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 운송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포장재 재사용 불가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2월 부 HAK항 비운항 / YNT항 233편 비운항 입니다.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기타

## ■ 항공사별 유류 및 기타 할증료 변경

- ① **KE/OZ/외항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2025년 2월 16일부터 부과될 유류할증료 (장거리 : 570 원/Kg, 중거리 : 540 원/kg, 단거리 : 510 원/kg)
- ② **LH** : 1월 28일부터 장거리 1,420 원/Kg.
- ③ **CV/ C8** : 1월 27일부터 FSC: 1,320 원/KG.

## ■ 기타 항공사 및 포워드 동향

### ① Lufthansa Cargo(LH) : 폴란드행 화물기 운항 추가

루프트한자 카고는 중부 및 동유럽 수요에 중점을 두면서 폴란드로 가는 정기 화물 항공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신규 항공편은 4월 3일에 운항을 시작으로, Frankfurt 공항과 Katowice 공항을 주 2회 운항합니다. 이 노선은 목요일과 토요일에 항공사의 에어버스 A321 화물기로 운항되며, 폴란드에 오후 4시에 착륙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오후 5시 30분에 이륙합니다.

루프트한자 카고의 중부 및 동부 유럽 영업 및 취급 부문 이사인 Wojciech Ryglewicz는 "프랑크푸르트와 카토비체 간 정기 화물 노선 취항은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루프트한자 카고 노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카토비체 공항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공항으로, 이 지역의 항공 물류에서 점차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노선이 유럽의 이 지역에서 화물을 더 잘 처리하고 항공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카토비체 공항은 루프트한자 카고가 화물기를 실어 나르는 폴란드 최초의 공항이 될 예정입니다.

공항 운영사인 Upper Silesian Aviation Group 이사회 회장인 Artur Tomasiak은 "카토비체 공항의 화물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루프트한자 카고 경영진의 신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정은 카토비체 공항과 마찬가지로 카고 분야의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공항이 유럽의 이 지역에서 항공화물, 특히 전자상거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물 구역을 확장하고 최대 10,0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가진 두 번째 화물 터미널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 카고는 이미 공항에 진출해 있습니다. 2021년에 이 항공사는 카토비체 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폴란드를 위한 Road Feeder Service(RFS) 화물 통합 시설을 시작했습니다. [자료:AirCargoNews]

### ② UPS : Amazon 사업의 50%를 축소할 계획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대 고객사인 아마존과 사업의 50%를 축소할 계획을 밝힌 후 운송 대기업 UPS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회사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253억 달러에 달했고, 영업 이익은 18.1% 증가한 29억 달러, 순이익은 7.2% 증가한 1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은 0.1% 증가한 911억 달러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7.4% 감소한 85억 달러, 순이익은 13.8%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가장 큰 고객(아마존)과 2026년 하반기까지 물량을 50% 이상 줄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1월 1일부로 UPS SurePost 제품의 100%를 미국 우체국과 제휴하여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미국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end-to-end process 재설계'를 통해 1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다년간의 '효율성 재구성' 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올해 매출이 89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료:AirCargoNews]

### ③ 홍콩에어카고(RH) : HKG-글라스고노선 운항

홍콩에어카고가 10일부터 홍콩(HKG)과 스코틀랜드 글라스고(PIK)노선을 운항한다.

최근 이 항공사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국제 화물노선을 대폭 강화했다. 작년 10월에는 영국 버밍엄(BHX)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했다. 작년 9월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BUD), 오슬로(OSL)노선도 각각 운항하기 시작했다. 또 작년 3월에는 사우디 리야드(RUH)노선을 운항했다. [자료:카고뉴스]

### ④ 에어프레미아 : 인천-홍콩노선 주 4편 운항

에어프레미아(YP)가 1월24일부터 홍콩(HKG)노선을 주4편 정기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 항공사는 첫 편에서 97.5%의 탑승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매주 월·수·금·일요일 오전 8시 20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홍콩노선이 취항하며 장거리와 단거리노선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카고뉴스]

### ⑤ LX 판토스, ONE 와 美에 물류 합작법인 설립 : 'Boxlinks' 통해 미국 내륙운송 시장 공략

LX판토스는 글로벌 6위 선사인 ONE와 미국 내 합작법인(이하 JV) '박스링크스(Boxlinks)'를 설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 물류기업이 일본 최대 선사와 미국에 JV를 세운 것은 처음이다.

ONE(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는 2017년 일본 3대 컨테이너 선사(NYK, MOL, K-Line)가 컨테이너 부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 출범한 선사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적선사인 HMM, 대만의 양명해운과 함께 신규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Premier Alliance)'의 올해 2월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JV의 지분은 LX판토스가 51%, ONE가 49%를 보유한다. 양사는 지난 2023년부터 북미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후 약 2년 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최근 JV설립을 완료했다.

양사는 JV 박스링크스를 통해 미국 내 인터모달(intermodal)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인터모달은 철도와 트럭이 결합된 복합운송서비스를 말한다.

항만을 통해 미국 내륙으로 운송된 ONE의 컨테이너를 JV가 독점적으로 확보, 공(Empty) 컨테이너를 활용해 철도와 트럭운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공 컨테이너 회수의 효율화, 운송 부가 수익 창출 등의 측면에서 상호 윈-윈 구조의 사업이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은 수입 물동량 중심으로 컨테이너 화물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서부(LA 등)와 동부(Savannah, New York 등) 항만으로 수입된 컨테이너가 내륙 지역으로 이동 후 약 절반의 컨테이너는 수출 화물을 찾

지 못한 채 공 컨테이너 상태로 항만으로 회수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JV는 미국 최대 철도사인 UP(Union Pacific), NS(Norfolk Southern), BNSF와 직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 전역의 주요 거점을 잇는 철도 노선 서비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운임을 확보했다.

미국 인터모달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다. 북미인터모달협회(IANA)에 따르면 북미 인터모달 시장은 약 79조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이 10.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는 "이번 JV설립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인터모달 신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제운송과 내륙철도를 연계한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 고도화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카고뉴스]

⑥ **LX 판토스** : 인천공항 상용화주터미널 오픈

LX판토스(대표 : 이용호)가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상용화주 터미널을 개장했다. 상용화주란 항공보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체적인 보안 검색 시스템을 인정받아 지정된 사업자를 뜻한다. 상용화주의 화물은 상용화주터미널에서 보안 검색 및 ULD 작업을 거친후, 공항 화물터미널 보안검색을 면제받고 항공기로 직접 운송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내에 2,069㎡ 규모로 개장한 LX판토스 상용화주터미널은 자체 보안 검색 및 화물 조업을 위한 각종 첨단 시설과 장비, 특수 보안 트럭,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대규모 종합상황실을 갖췄다.

최근 중국발 전자상거래 제품의 인천공항 환적화물 증가에 힘입어 인천공항 물동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용화주터미널 이용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X판토스는 인천과 미국 시카고(ORD)를 연결하는 화물 전용기 전세편을 올해 1월 19일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운항한다. 이번 전세편은 'B777F' 화물기로 매주 일요일 16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앵커리지를 경유, 같은 날 15시 45분에 시카고공항에 도착한다.

오근택 LX판토스 항공사업부장은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전세기 운영노하우와 새로 오픈한 상용화주 터미널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카고뉴스]

⑦ **헬만** : 美 신선물류업체 HPL 아폴로 합병

헬만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가 3일 신선물류 전문업체인 'HPL 아폴로'를 합병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HPL 아폴로'는 항공·해상·육상운송을 통한 신선물류 전문업체다. 일단 HPL의 지분 50%를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50%는 향후 1년 안에 양측 협의하에 합병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헬만은 북미지역에서 신선물류 사업을 보다 강화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페루, 멕시코, 브라질, 칠레에 대한 입지도 구축하게 됐다. 헬만은 이번 입지를 계기로 앞으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중남미지역 등에 대해 전략적 진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카고뉴스]

⑧ **ICN 중국발 'Sea&Air' 물동량 사상 최고치**

: 전자상거래 확대로 20% 증가한 11 만 8,000t

작년 인천공항 해상·항공(Sea&Air) 복합운송 물동량이 11만 8,000t으로 전년(9만 8,000t)에 비해 20%나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세계 192개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 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수도 지난 2023년 35개국에서 2024년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 평택항(35%), 군산항(2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에는 군산항의 실적이 가장 높았다. 한-중 카페리(Car Ferry) 항로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부각되며 인천항이 2년 만에 다시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작년 Sea&Air 활성화를 위해 중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운송 전과정을 실사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후 각 항만 및 물류기업과 공유했다. 또한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는 등 특화형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올해 Sea&Air 전망과 관련하여 공사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국발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주 및 유럽 등 핵심 노선의 화물기 공급 확대와 국내 항만-물류단지-공항에서 3회에 걸쳐 실시되는 철저한 화물검색 체계를 강점으로 활용해 올해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화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가진 지정학적 역량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인천공항 화물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카고뉴스]

■ **국가별 공휴일**

포워더케이알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공휴일은 다음의 링크를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더케이알]

<https://www.forwarder.kr/curr/holiday.ph>